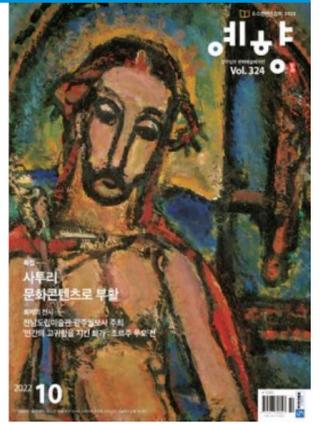




광주시립미술관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 G.MAP(지맵/Gwangju Media Art Platform)이 선보이는 대형 미디어아트 파사드 작품들이 눈길을 끈다. <지맵 제공>

광주일보 문화예술 매거진 10월호

연남



# 밤이 아름다운 광주, 미디어 파사드로 초대

무등산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십장생도, 화면 위로 흐르는 운동주의 시, 물결치는 다양한 색채의 화면.

요즘 광주전반을 지나다보면 화려한 미디어 아트의 세계를 만날 수 있다. 예술과 기술이 만난 색다른 예술로의 초대다.

광주시립미술관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 G.MAP(지맵/Gwangju Media Art Platform)이 선보이는 대형 미디어아트파사드 작품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지맵 외벽 상단부에 설치된 가로 53.9m, 세로 8.7m 규모의 대형 미디어 월에서 만나는 작품들은 지난 3월 개관한 지맵의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유네스코 지정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광주는 내년까지 미디어아트 창의벨트 5개권역 사업을 완료한다. 올해 작품을 선보이기 시작한 옛 전남도청과 금남공원 등 2개 권역에 이어 이번엔 지맵의 미디어 파사드가 공개되면서 '밤이 아름다운 광주', '야간 관광의 도시 광주'에 한발 다가섰다.

지맵은 8월 한달간 테스트를 거쳐 지난달 29일 개막한 광주미디어 아트페스티벌을 통해 작품을 특별상영 중이며 10일부터는 하루 세차례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선보인다.

대표 콘텐츠는 예술과 기술의 융합이라는 지맵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브랜드 콘텐츠 '테크네 techné'를 비롯해 'Eternal Lights', 'Four Seasons, Memory' 등 모두 7편이다.

고대 철학 용어로 '기술', '능숙함', '예술'을 의미하는 '테크네'는 과학기술과 뉴미디어의 발달 및 기술과 예술 간의 새로운 관계성 구축에 따라 새롭게 주목받는 개념이다. 이번 작품은 문명을 이룩한 인류 역

##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 '지맵', 54m 대형 미디어 월 오픈

### '테크네' '영원한 빛' 'Poetic Tree' 등 7편 상시 상영

사들 '손'으로 형상화하고 손을 통해 인간 주체의 문화사를 표현한다.

'Four Seasons, Memory'는 오명희 작가와 협업한 작품으로 낙화와 소멸되는 순간의 절정을 포착한 장면들을 한국의 사계로 표현, 다시 화려하게 피어나는 광주 정신을 부각했다. 오 작가는 수원대 명예교수로 2022 유러피안 컬처센터 주관 베니스 비엔날레 특별전 초대작가로 참여했다.

디지털 시화(詩畵) 컨셉으로 제작된 'Poetic Tree'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시공간 위에 김소월과 윤동주의 시가 모습을 드러낸다. 무수히 흐르는 시간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우리 문화와 정신을 상징적으로 포착한 작품이다.

'Eternal Lights(영원한 빛)'는 무등산 호랑이와 무등산이 배경인 디지털 십장생도를 통해 일상의 염원

과 소망을 나타낸 작품이며 'Dessert Showcase'는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16개국 17개 도시)가 '달콤함'을 공통 주제로 삼아 제작했다.

'Data Fantasy'는 공공 데이터(분야별 문화예술 활동 건수)를 활용해 진숙한 명화를 새로운 미디어 아트로 재구성한 작품으로 칸딘스키의 '노랑, 빨강, 파랑'을 모티브 삼아 조화와 균형의 메시지를 연출했다. '공공 템플릿'은 생동감 있고 창의적인 패턴 연출 등을 통해 지맵의 창조적이고 미래지향적 이미지를 나타냈다.

오는 9일까지 열리는 페스티벌 기간(주말·공휴일 오전 11시 30분~밤10시, 평일 오전 11시 30분~오후 1시 30분, 오후 6시~밤10시)에는 특별상영되며 10일부터는 하루 세차례(오전 8시~9시, 오전 11시 30분~오후 1시 30분, 오후 6시~밤10시)에 걸쳐 상시 송출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Dessert Showcase'

## 맛집 투어 심슨여사, 골프 치는 미키마우스

### 이영실 '트렌드' 전, 5일까지 예술의 거리 이화갤러리

심슨 가족, 미키마우스, 스타벅스. 우리에게 친숙한 캐릭터와 상품들이 그림으로 탄생했다. 골프 웨어를 착용한 미키마우스는 멋지게 스윙을 하고, 유명 애니메이션 주인공 심슨여사는 '삼대째 내려오는 맛집'을 찾아 여행중이다. 함께 가족 여행을 떠난 이들의 가방에 담긴 건 스타벅스 커피, 곰돌이 인형, 맛있는 유명 도너츠 등이다.

이영실 작가 개인전이 오는 5일까지 광주 예술의 거리 이화갤러리(예술길 19-2)에서 열린다. 8월 서울 인사아트센터 G&J갤러리 전시에 이어지는 개인전이다.

'트렌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이 작가는 톡톡 튀는 캐릭터와 명품 로고, 익숙한 이미지들을 활용해 자신만의 재미있는 스토리를 만들어냈다. 웃, 음

식, 노래 등 일상에서 만나는 것들은 모두 작품 소재가 됐고 친근한 소재이기에 누구나 편안하고 즐겁게 관람할 수 있다. 마치 일러스트 작품을 보는 듯한 컬러풀한 색감도 눈에 띈다.

이 작가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대에 트렌드화되어가는 많은 것들은 다채롭고 흥미롭고, 시대적 변화에 따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향과 모습들도 다양해졌다"며 "새로움을 추구하고 변화의 흐름을 따라가며 다양한 생각들과 소통한 작품들"이라고 말한다.

이 작가는 지금까지 15차례 개인전을 개최했으며 광주전남여성작가회, 전우회, 한울회, 황토드로잉회 회원으로 활동중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출인원'

## 청년작가들에 '마음을 묻다'

### 30일까지 소암미술관

청년작가들의 다양한 시선을 만나는 전시회가 열린다.

소암미술관(관장 양동호·광주시 남구 중앙로 83-1)은 오는 30일까지 청년작가 단체전 '마음을 묻다'를 개최한다.

광주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35세 이하 청년작가를 초대해 이번 전시에서는 김별, 민기쁨, 유가은, 신누리 작가가 2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조선대 미술학과 서양화 전공 석사과정에서 재학중인 김별 작가는 타인들의 시선에 의해 느끼는 표정이나

불안정한 감정을 공포감이 담긴 인물의 기괴한 표정 등 추상적인 형태로 재현, 현대인의 자화상을 표현한다.

같은 학교에 재학중인 민기쁨 작가는 '눈'을 모티브로 작업한다. 그는 에나멜, 크리스탈 레진 등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과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느껴지는 감정 등을 다채롭게 담아냈다.

유가은 작가는 허구적 세계에서 나타나는 감정의 상실감을 작품으로 재현한다. 작품에 나타나는 인물의 묘한 표정들은 사실적인 묘사가 배제돼 인상적이다.

신누리 작가는 인간의 몸짓으로부터 전달되는 바디랭귀지를 통해 상대에게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것에 주



30일까지 소암미술관에서 열리는 '마음을 묻다' 전.

목한다. 인물의 비뚤어진 이목구비와 거친 선의 표현은 해학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한글날 특집 '사투리, 문화콘텐츠로 부활' 전남도립미술관, 조르주 루오 '화제의 전시'

오는 10월 9일은 제576돌 '한글날'이다. 매년 이때마다 우리글자인 한글의 우수성을 기리고 우리말을 사랑하기 위한 다양한 기념행사가 진행된다. 팔도 사투리가 한곳에 모이는 '말모이 축제'도 그 중 하나다. 잊혀져가고 사라져가는 우리말 사투리를 지키고 보존하는 것 또한 한글을 사용하는 우리의 의무 중 하나임에 틀림없다.

광주일보가 발행하는 문화예술매거진 '연남'은 한글날을 맞아 특집 '사투리, 문화콘텐츠로 부활'을 준비했다.

'있나- 나는 시상 권있는 내야 강아지야'(있잖아 너는 엄청 매력적인 나만의 강아지야). 김진아 디자이너('역사사소' 대표)의 사투리 문화상품 문구다. 지역고유의 생활문화와 개성을 담은 사투리가 문화콘텐츠로 부활하고 있다. 시와 소설은 물론 드라마, 영화, 가요,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토박이말, 사투리를 재조명한다.

예향 초대석에서 만난 주인공은 네 차례 유라시아대륙을 횡단한 탐험가 김현국이다. 그는 1996년부터 2019년까지 모두 4차례 모터바이크를 몰고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했다. 2019년에는 세계 최대 탐험가 단체 '더 익스플로러스 클럽'(The Explorers Club)에 한국인 최초로 정회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유라시아 문화교류 프로젝트'의 하나로 기획된 '아시아 하이웨이 6호선'(-10월 26일)을 열고 있는 탐험가 김현국의 유라시아 대륙횡단 대장정에 대해 들었다.

'화제의 전시'는 20세기 현대미술의 거장 조르주 루오의 대표작을 만나는 전남도립미술관으로 향한다. 전남도립미술관과 광주일보사가 공동 개최하는 '인간의 고귀함을 지킨 화가: 조르주 루오'전이 10월 6일부터 2023년 1월 29일까지 열린다.

루오는 인간 존재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

을 통해 송고한 인간애를 작품으로 표현해 왔다. 깊은 신앙심을 바탕으로 종교화를 제작했고 사회적 모순과 부조리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작품 속에 인간을 향한 연민을 담아냈다. '예향' 10월호 표지 역시 루오가 1949년 그린 '수난(모욕 당하는 예수 그리스도)'(봉피두센터 소장)다. 프랑스 국립봉피두센터와 조르주 루오재단, 말뚝 갤러리에서 엄선한 200여 점의 유화·판화 작품을 지면으로 소개한다.

새롭게 시작한 기획물 '모두를 위한 거리의 미술관'도 눈에 띈다. 도시의 폭력과 색깔을 엿볼 수 있는 국내외 유명 공공조형물의 현장과 광주의 미래를 조명하는 형식의 '광주 도심을 걷다 보면 다양한 형상의 공공조형물을 만날 수 있다. 오래된 골목길의 벽화에서부터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조각상, 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유산인 폴리까지 각양각색의 조형물은 굳이 미술관을 가지 않더라도 예술의 향기를 느끼게 한다.

깊어가는 가을, '예향'이 찾아간 '남도 오디세이 美路珠璣'은 '천사의 섬' 신안이다. 해양생태관광 일번지로 도약하고 있는 '1004섬' 신안. 천사대교로 연결된 자은-압태-팔금-안좌도와 '퍼플섬' 등지에 여행자들의 발길이 이어진다. 나아가 신안군은 '1도(島) 1뮤지엄'과 '세계적 꽃피는 1004섬 정월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가고 싶은 섬'에서 '살고 싶은 섬'으로 변화를 모색하는 신안의 가을, '느림의 미학'을 찾아 떠난다.

이외에 '광주 한 바퀴'는 10월 광주에서 개최되는 축제를 소개하고 윤공희 대구교립미술관으로 향한다. 전남도립미술관과 광주일보사가 공동 개최하는 '인간의 고귀함을 지킨 화가: 조르주 루오'전이 10월 6일부터 2023년 1월 29일까지 열린다. 루오는 인간 존재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



## 공허와의 만남 '긫'

### 국제무용협회·무브아르 무용단, 14~15일 ACC 극장2

우리말 가운데 '비탄'(悲愴)은 슬퍼하며 탄식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우리 한민족의 고유의 정서인 한과 연계되는 감정이다.

긫은 비탄의 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매개로 펼쳐지는 공연예술이다. 긫에는 공동체 문화, 특히 우리나라 특유의 샤머니즘의 의례가 예술이라는 행위 안에 투영돼 있다.

샤머니즘의 의례와 예술에 관한 실험 작품을 유럽 예술인들은 어떻게 해석할지 생 각하게 하는 공연이 펼쳐져 눈길을 끈다.

오는 14~15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전당장 이강현) 극장2에서 펼쳐지는 무용 '공허와의 만남'이 그걸.

작품은 국제무용협회 한국본부와 독일 쾰른에서 창단해 무용을 비롯해 음악, 시각예술, 비디오 아트 등 다양한 예술 분야의 융합을 시도하는 무브아르 무용단 협업

의 산물이다. 이번 작품은 ACC 제2회 국제공동 창제작 공모 선정작으로 공동체가 삶의 비애를 어떻게 수용하는지 초점을 맞췄다. 더불어 인류는 사회적 슬픔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지도 세심하게 들여다볼 예정이다.

출연진으로는 황해도 만구대타극 전수자 민혜경 만신, 창작무용가 장혜림이 창작 제작 과정에 참여했으며 한국과 독일 외에도 프랑스, 스페인, 그리스 등 다양한 나라의 예술인이 참여했다.

입장권은 S석 2만원, A석 1만원이며 자세한 내용은 ACC 누리집 참조.

한편 ACC는 아시아문화자원을 창작 토대로 실험적인 콘텐츠를 제작해 아시아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공연제작 사업을 펼치고 있다.

/박성진 기자 skypark@kwangju.co.kr